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13:30~15:30

장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13:30~15:30

장 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진행순서

---

13:30-14:15 세션 1 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

인사말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시민희망지수 연구 추진 경과 공유	인은숙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장)
시민희망지수 발표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14:15-15:30 세션 2 전환의 시대, 시민희망엔진을 켜라

---

### 발표 · 토론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좌장 :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이근형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희망’이 우리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가지는 의미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작고 소소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 질의응답

---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

프롤로그\_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2016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요약 3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21  
\_이근형(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희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들 31  
\_김홍중(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39  
\_하승수(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작고 소중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47  
\_유경희(그리다협동조합 대표)

에필로그\_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55



## 프롤로그

# 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_올리버 골드스미스

2016년 대한민국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경제성장 동력이 멈췄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지 오래입니다. 어찌면 굼고 굼아 터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기 쉽지요.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한다고 하니 ‘때’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굼고 굼아 터져버린 상처 부위와 통감을 문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떤 것 같은지?’ 시민에게 ‘희망’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의 희망’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요소와 근거로 희망하는가?”,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희망을 갖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희망’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측정하고 그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내부적 논의과정도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제각각이었지요. 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은 ‘희망지수 시민자

문단'들의 관심과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의 “희망제작소라서 그런 연구가 가능하니 과감히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희망제작소에서 물꼬를 터주면 이후 학문적 정교화 및 후속연구는 우리들이 해보겠다”는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잡히지 않는 실체를 찾아 돈키호테의 희망처럼 호기롭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애초의 ‘희망지수’ 개발에서 ‘시민희망지수’ 개발로 생각을 정리하는 ‘이름표’를 붙이면서 연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적 ·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시민이 느끼고 말하는 우리시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측정방법 또한 계량가능한 것들의 폭압에서 자유로워져 복잡하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구팀의 희망경로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했고,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이후 과정도 시민참여 방식으로 과제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가 올해로 열 살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든든한 지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조직의 10년 역사와 활동결과를 통해 받았습니다. 창립 이래 줄곧 뜬구름을 잡아 땅위에 온갖 희망의 근거와 작동원리를 증명해온 ‘희망제작소’라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모쪼록 이 연구가 미흡하지만 ‘시민희망지수’의 원년을 알리는 물꼬로서 희망제작소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다다르자,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과 ‘희망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연구팀은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우리에게 옵니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 희망제작소



2016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요약

## 2016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요약

### 왜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를 했는가

-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 왔다.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시민희망지수’를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통의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희망’에 대해 오랜 시간 철학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희망’은 그저 개인적 욕망 또는 바람 등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연계될 것이라 믿고 추구했던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은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이에 세계적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개발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희망이란 현재를 진단하는 행복, 삶의 질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미래’라는 시간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 희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 김홍중(2015)의 꿈자본과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참조하였다. 꿈과 희망은 단순히 개인적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는 행동과 실천을 구성하는 실질적 힘을 가진다. 따라서 희망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으로 관점을 확장하고,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정의한다. ‘시민희망인식조사’는 현재 주관적 삶의 질과 미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인식측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영역 구분	캐나다 웰빙지수	부탄 행복지수	호주 진보척도	삶의 질 (한국)	OECD
경제상태와 소속된 사회계층	생활수준	생활수준	경제	주거/교통, 소득/소비, 노동	주거/소득/일자리
사회	건강	보건	사회	건강	건강
사회(환경)	환경	생태계	환경	환경	환경
사회(교육)	교육	교육	사회	교육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활력	지역사회 생명력		사회통합, 가족	공동체
정치(시민참여)	민주적 참여	좋은 거버넌스			거버넌스
경제(근로시간)	여가와 문화	문화		문화/여가	일-삶 균형
삶의 만족	시간사용	시간활용			
		심리적 웰빙		안전	삶의 만족 안전

### 어떻게 개발했는가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다. 사전연구 단계로, 2015년 9월부터 연구 착수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탐색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은 국내외 자료조사와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한계를 정리했다. 2016년부터는 사전연구의 여러 가지 시도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방법을 ‘시민인식조사’로 확정하고, 그에 맞춰 5단계의 연구과정을 설정하여 진행했다.
- 1단계로 일반적인 희망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유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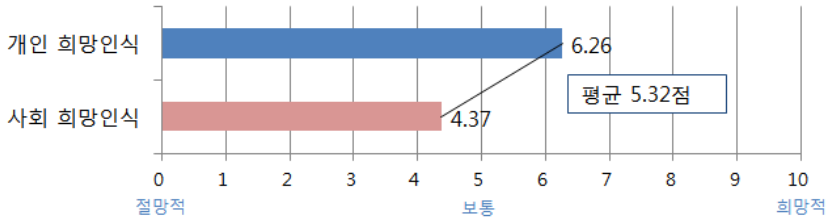
의 관련 지표와 지수 측정방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연구진의 집중토론을 거친 후,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결과에 대한 연계지점을 고려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가설 및 조작적 개념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지표, 특히 '삶의 질 지표' 구성요소를 참고하고,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결과로 도출된 각 영역별 키워드를 조사내용에 반영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설문문항 파일럿조사를 실시했다. 4단계에서는 최종 설문항목의 정교화를 진행했고, 지수 도출을 위한 구조를 확정지었다. 5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시민희망지수'를 도출하였다.

- 조사는 크게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개인적 삶에 대한 희망인식,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희망인식, 세 번째는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희망인식이며 세부적인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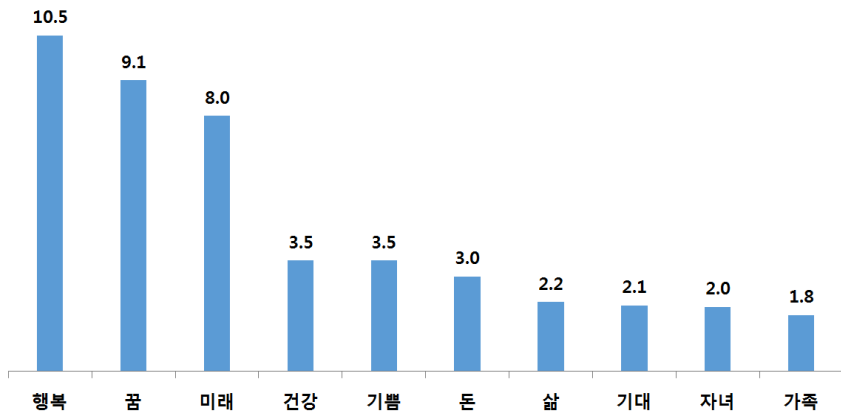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 개인들의 희망인식지수는 6.26점, 향후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지수는 4.37점으로 나왔다. 특히,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3040세대의 희망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 사회에 대해 양극화, 불공정, 사회갈등,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 등 부정적 인식 경향이 강했다. 개인의 희망지수가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지수보다 높게 나타나, 절망적으로 사회를 인식함에

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 속에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개인 희망인식과 사회 희망인식을 합친 시민들의 희망인식은 평균 5.32점으로, 한국사회에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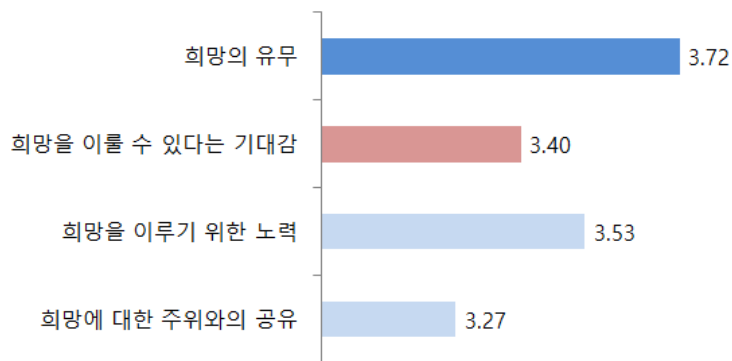
### 개인 삶에서의 희망인식

-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행복', '꿈', '미래' 순으로, 10~30대는 '꿈'을, 40대 이상은 '행복'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희망'을 인식하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현재의 행복을 '희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희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인식도와 소득과 특히 연관된다.





○ **희망에 대한 태도 (5점 만점):** ‘희망이 있다’, ‘이룰 수 있다’, ‘노력한다’, ‘공유한다’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희망이 있다’(3.72점)와 ‘노력한다’(3.53점)에 비해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3.40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희망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실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긍정 수준은 낮은 편이다. ‘희망의 유무’는 ‘30대’, ‘기대감’은 ‘15~19세’, ‘노력’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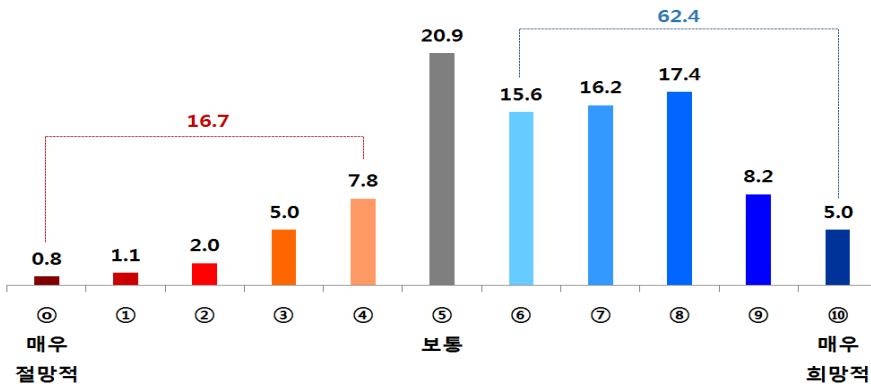
	사례수	희망의 유무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이루기 위한 노력	주위와의 공유	
		%	%	%	%	
<b>전 체</b>	1,000	3.72	3.40	3.53	3.27	
<b>연령대</b>	만 15 ~ 19 세	73	3.68	3.21	3.29	3.01
	만 20 ~ 29 세	150	3.67	3.37	3.22	3.21
	만 30 ~ 39 세	170	3.55	3.24	3.35	3.23
	만 40 ~ 49 세	197	3.64	3.29	3.45	3.07
	만 50 ~ 59 세	187	3.88	3.50	3.78	3.52
	만 60 세 이상	223	3.84	3.61	3.82	3.41

- **삶의 만족도 (5점 만점):** '경제상태'(2.79점)와 '사회적 지위'(2.93점)는 '불만족'이 우세한 반면, '가족·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3.35점),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3.13점)는 '만족'이 우세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3.11점으로, '보통'(3점)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고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적 삶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측면의 만족도도 낮아져 소득에 따라 삶 전반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점수 5점	
		%	%	%	%	%	불만족	만족		
<b>전 체</b>	1,000	4.2	19.0	41.0	33.3	2.5	23.2	35.8	<b>3.11</b>	
<b>연령대</b>	만 15 ~ 19 세	73	9.6	23.3	26.0	37.0	4.1	32.9	41.1	3.03
	만 20 ~ 29 세	150	4.0	19.3	48.0	27.3	1.3	23.3	28.7	3.03
	만 30 ~ 39 세	170	2.4	21.2	51.8	22.4	2.4	23.5	24.7	3.01
	만 40 ~ 49 세	197	5.6	19.8	45.2	26.9	2.5	25.4	29.4	3.01
	만 50 ~ 59 세	187	3.2	17.1	38.0	38.5	3.2	20.3	41.7	3.21
	만 60 세 이상	223	3.6	16.6	31.8	45.7	2.2	20.2	48.0	3.26
<b>지역</b>	서울	195	3.1	23.1	43.6	28.7	1.5	26.2	30.3	3.03
	경기/인천	298	4.4	17.4	45.3	30.9	2.0	21.8	32.9	3.09
	대전/충청/세종	104	3.8	25.0	31.7	35.6	3.8	28.8	39.4	3.11
	광주/전라	103	4.9	19.4	35.0	37.9	2.9	24.3	40.8	3.15
	대구/부산/경상	255	4.3	16.5	39.6	36.1	3.5	20.8	39.6	3.18
	강원/제주	45	6.7	11.1	44.4	37.8	0.0	17.8	37.8	3.13

○ 개인 희망인식 (10점 만점):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희망적'이라고 응답, 평균점수는 6.26점이다. 희망인식이 가장 낮은 층은 '3040세대', '수도권', '학생', '블루칼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만족도가 높은 5060세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세대인 1020세대에서 높은 희망인식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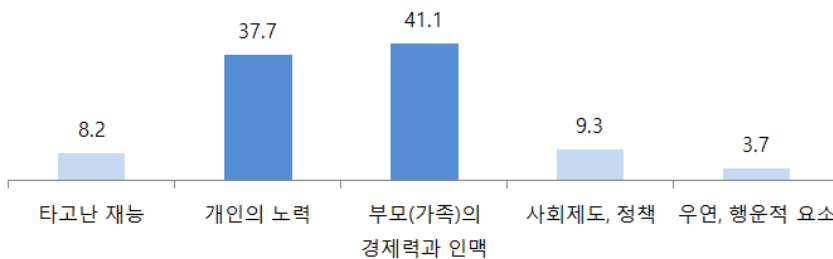


	사례 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종합평가		10점	
		매우 절망적	%	%	%	%	%	%	%	%	%	매우 희망적	절망적	희망적		
전 체	1,000	0.8	1.1	2.0	5.0	7.8	20.9	15.6	16.2	17.4	8.2	5.0	16.7	62.4	6.26	
대 연령	만 15 ~ 19 세	73	1.4	1.4	1.4	11.0	6.8	12.3	15.1	17.8	23.3	4.1	5.5	21.9	65.8	6.19
	만 20 ~ 29 세	150	0.7	0.0	3.3	4.0	10.0	18.7	22.0	15.3	10.0	8.0	8.0	18.0	63.3	6.23
	만 30 ~ 39 세	170	0.0	1.8	2.4	4.7	8.2	27.1	18.2	14.1	14.1	6.5	2.9	17.1	55.9	5.98
	만 40 ~ 49 세	197	1.5	1.0	2.5	5.6	8.1	23.9	15.7	17.8	13.7	5.1	5.1	18.8	57.4	5.99
	만 50 ~ 59 세	187	0.5	0.0	1.6	4.8	5.9	19.8	13.9	13.4	19.8	13.4	7.0	12.8	67.4	6.65
만 60 세 이상	223	0.9	2.2	0.9	3.6	7.6	18.8	10.8	18.8	24.2	9.4	2.7	15.2	65.9	6.41	
지 역	서울	195	0.0	1.5	2.1	8.2	9.2	22.1	14.9	15.4	13.3	7.2	6.2	21.0	56.9	6.07
	경기/인천	298	0.3	2.0	3.0	6.7	6.4	24.8	16.8	12.8	16.4	5.4	5.4	18.5	56.7	6.01
	대전/충청/세종	104	1.0	0.0	3.8	0.0	4.8	22.1	16.3	18.3	16.3	12.5	4.8	9.6	68.3	6.55
	광주/전라	103	1.0	1.0	1.0	7.8	5.8	15.5	13.6	17.5	19.4	13.6	3.9	16.5	68.0	6.48
	대구/부산/경상	255	2.0	0.4	0.4	2.0	10.2	17.3	14.9	19.2	20.8	8.6	4.3	14.9	67.8	6.45
강원/제주	45	0.0	0.0	2.2	2.2	8.9	20.0	17.8	17.8	20.0	6.7	4.4	13.3	66.7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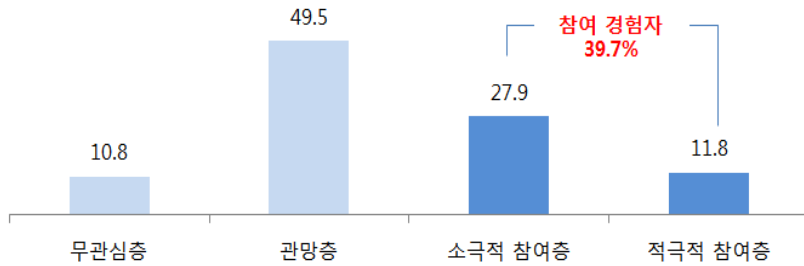
- **소득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삶의 희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희망인식도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따라 개인 희망인식은 ‘절망적’에 가까운 4.40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7.85점까지 더욱 벌어졌다.

		개인 희망 인식 (10점만점)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 정도 (5점만점)	꿈의 실현 가능성 정도 (5점만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정도 (5점만점)	희망에 대한 주변과의 소통 정도 (5점만점)
전 체		6.26	3.72	3.40	3.53	3.27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5.61	3.55	3.16	3.35	3.05
	201~400만원	5.98	3.65	3.36	3.45	3.15
	401~600만원	6.42	3.77	3.45	3.61	3.40
	601만원 이상	7.05	3.91	3.58	3.71	3.50
현재 삶 만족도	불만족	4.40	3.34	2.87	3.15	2.90
	보통	5.92	3.64	3.29	3.40	3.17
	만족	7.85	4.06	3.87	3.93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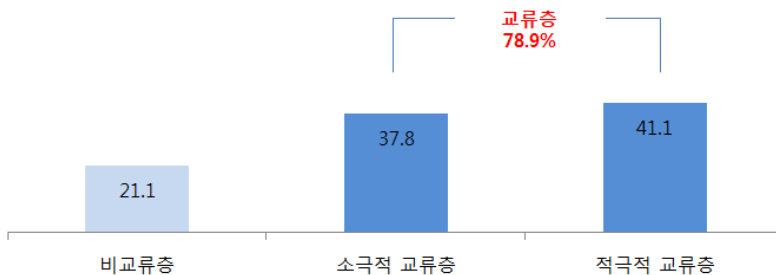
-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41.1%), ‘개인의 노력’(37.7%)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5060세대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1040세대에서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을 가장 높게 보았다. 직장인과 학생층은 ‘부모’ 요소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이는 금수저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오력의 배신」의 시대에 사는 청년세대들과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청년세대를 몰아붙여온 기성세대들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대관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며, 세대통합이란 과제에 대해 여실히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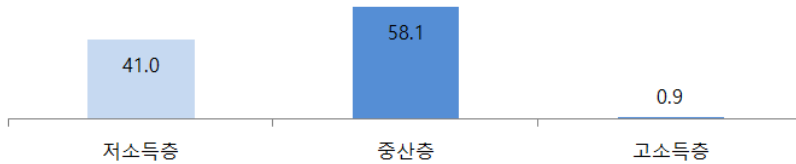
- **시민사회 참여활동 적극도:** 관망층(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참여층(간헐적 27.9%+적극적 11.8%)은 39.7%에 해당했다. ‘적극적 참여층’은 집회, 공동체 활동, 정기적 모금, 후원 등의 활동을 하는 계층으로, 5060 고령층에서 더 높고, 지역 기반 활동에 적극적인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표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시민사회 참여활동도 높았다. 시민사회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희망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웃과의 교류 정도:** ‘이웃과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은 78.9%로, ‘적극적 교류층’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교류,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층은 여성, 주부, 자영업, 고령층, 비수도권 거주층이며, 시민사회 참여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이웃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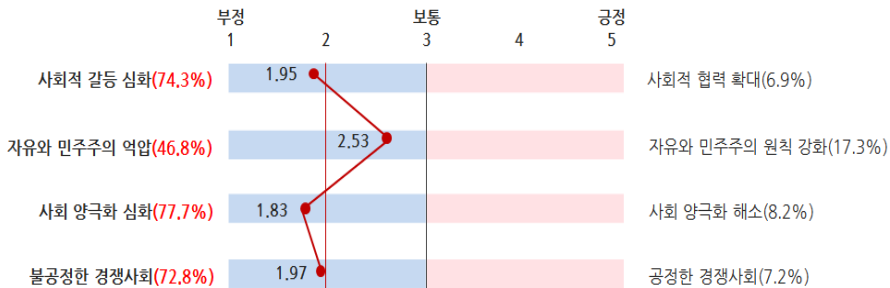


- **귀속계층 평가:** 중산층 58.1% > 저소득층 41.0%으로 지역별 인식 차이는 미미했다.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직업군은 ‘블루칼라’(60.5%)와 ‘자영업층’(45.8%)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3040세대에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가장 높았다. 실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01~600만 원 계층에서도 10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01만 원 이상 계층에서도 16.3%가 저소득층 인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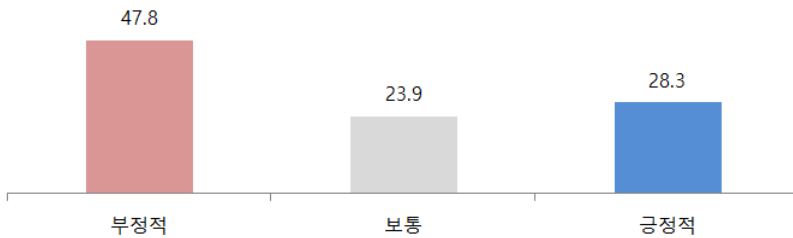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의 희망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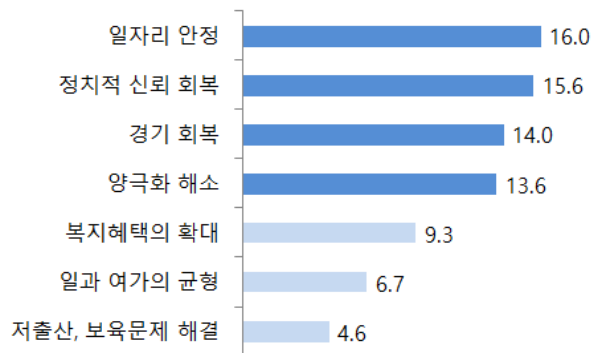
-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갈등과 억압, 양극화와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크고 확고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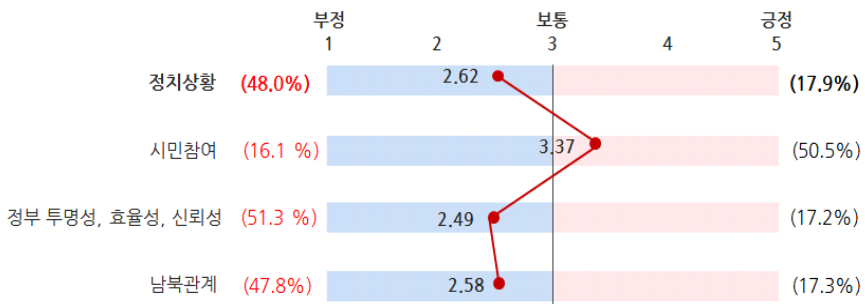
-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 (10점 만점):** 우리 사회의 희망을 어둡게 인식(부정 47.8% > 긍정 28.3%)하고 있으며, 점수로는 4.37점으로 나타났다. 앞선 질문인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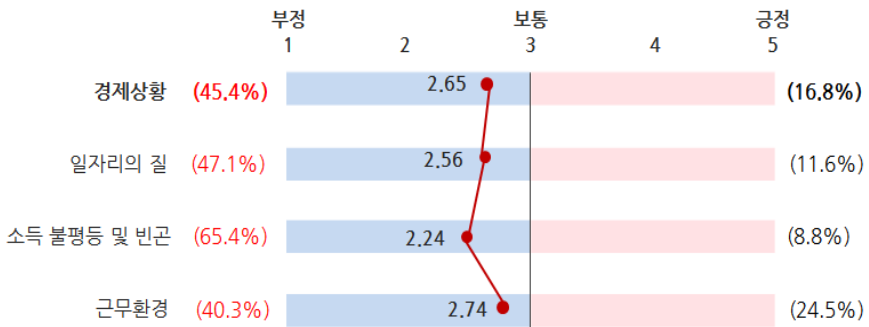
- **희망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①시민참여의 확대 ②정치적 신뢰 회복 ③남북 화합 ④경기 회복 ⑤일자리 안정 ⑥양극화 해소 ⑦일과 여가 균형 ⑧복지혜택의 확대 ⑨저출산, 보육 문제 해결 ⑩사교육문제 해결 ⑪사회적 다양성 ⑫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⑬성평등 ⑭세대공감(세대통합) ⑮기타의 14가지 보기 문항(중복응답) 중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일자리 안정'(16.0%), '정치적 신뢰 회복'(15.6%), '경기 회복'(14.0%), '양극화 해소'(13.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해결(일자리, 경기, 양극화)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치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 - 정치:** '향후 5~6년간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나빠질 것' 48.0%, '나아질 것' 17.9%). '시민참여'(3.37점)는 긍정적 전망이, '정부투명성, 효율성, 신뢰성'(2.49점)과 '남북관계'(2.58점)는 부정적 전망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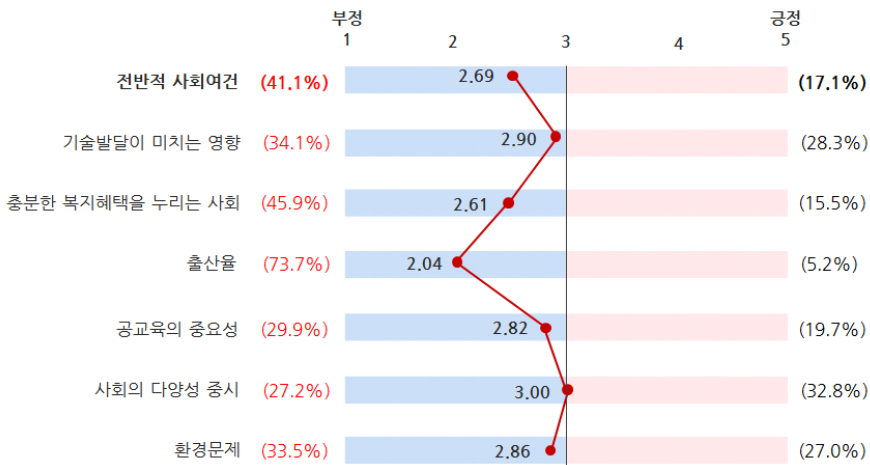


-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 - 경제:** '향후 5~6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5점 만점에 2.65점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나빠질 것' 45.4%, '나아질 것' 16.8%).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가장 부정적(악화될 것 65.4%, 개선될 것 8.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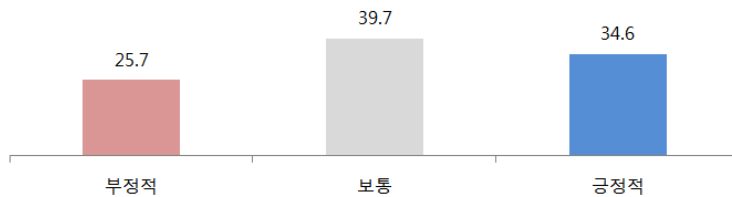




-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 - 사회:** ‘향후 5~6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여건’은 5점 만점에 2.69점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나빠질 것’ 41.1%, ‘나아질 것’ 17.1%). 우리 사회와 관련한 7가지 질문 중 ‘사회 다양성 중시’를 제외한 분야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기여:**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운동에 대한 긍정 평가층’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고 사회 희망인식도 더 높았다.



- 이념에 따른 사회 인식: 진보는 우리 사회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강하고, 사회 희망인식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 따른 개인 희망인식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향후 정치 전망 중 '정치일반'과 '시민참여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는 이념 차이가 없으나, '정부투명성 강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에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차이가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 성향		개인 희망인식 (10점)	사회 희망인식 (10점)	사회적 갈등/협력 (5점)	자유-민주 주의역압 (5점)	사회양극화 심화/해소 (5점)	경쟁불공정 /공정 (5점)
	진보	6.21	3.74	2.48	2.17	1.64	1.71
	중도	6.15	4.46	2.84	2.57	1.89	2.02
	보수	6.61	5.05	3.02	2.97	1.94	2.21

정치적 이념 성향		향후 정치 상황 전망	향후 시민참여 수준 전망	정부투명성/ 효율성/신뢰성 전망	향후 남북관계 전망
	진보	2.65	3.43	2.32	2.55
	중도	2.61	3.32	2.50	2.54
	보수	2.61	3.42	2.69	2.74
	진보-보수 격차	-0.04	-0.01	0.37	0.19

## ‘시민희망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시민희망지수’는 하나의 측정도구이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시민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개인의 희망과 사회의 희망은 분리될 수 없고, 우리시대의 희망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 2016년 11월, 대한민국 시민들의 희망은 결핍되어 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가고, 저소득층은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간 희망제작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시민희망인식 조사의 결과로부터 우리시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희망의 주체가 되어야 할 30~40대들에게 희망을 묻고 충전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 청년과 청소년들이 지역과 국가의 일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지역에서 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협력 위에 희망을 배양해야 한다.
- 지방자치 민선 5기, 6기 마을과 동네에서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연대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과 농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러한 로컬단위의 움직임은 국가정책을 선도할 정도로 지역혁신 사례가 되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다양한 시도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의 연대, 작은 단위의 공유경제, 주민참여,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지역혁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도 아파트공동체 운동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면서 작고 소소한 모임들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들이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살아난다면 개인의 희망 결핍 상태는 고립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치유될 수 있다. 희망은 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협력 위에서 이어질 때 비로소 변화의 에너지원이 된다.

- 희망은 1%가 아닌 99%를 위한 것이다. 굶을 대로 굶어있던 부정 부패라는 종기가 극적으로 터진 지금이야말로 시행착오와 오류, 자기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희망의 연대가 필요하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인식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철학이 갖춰지게 하는 희망에 대한 연대는 바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
- 지속가능한 자치와 민주주의를 향해, 고령화사회와 불평등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사회동력 발굴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시민과 함께 실험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어떻게 늘리고 강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 공동의 희망 패러다임이다. 지속불가능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할 때 한국사회에서 잊혀졌던 가치가 복원되고 과거의 구조적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개인과 이웃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 희망의 연대로 대안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이 힘이고 희망인 것이다. 시민이 만들고 구축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내일의 시작과 같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발제 1.

#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이근형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 우리시대 시민들의 희망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친 배경을 중심으로

이근형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광고홍보학 박사)

## ■ 관련 선행연구

### ○ 해외사례: 2014년 The Globe Scan Foundation의 The Hope Index 조사

- 세계 12개국(미국, 영국, 멕시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러시아, 폴란드, 파나마, 인도, 터키, 케냐, 인도네시아)의 시민 총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현재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서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면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시민희망인식조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류 차원의 희망을 측정했다는 점과 희망에 대한 3가지 측면(현 상황에 대한 전망, 극복에 대한 낙관, 미래 세대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수 형태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국내 사례: 희망 지수 개발을 위한 최초의 조사

- '희망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로 선행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최초 조사라는 중요성
-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의 성격, 향후 조사연구의 초석

## ■ 조사 설계상의 특징

###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국민 1,000명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회조사와 달리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조사 대상을 15세까지 확장(희망제작소 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조사를 통해 15세 이상의 설문 응답 가능성을 확인)

### ○ ‘희망’이라는 개념의 측정

- 본 연구에서는 희망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희망제작소 정의)로 제시하고 조사를 실시
- 희망을 ‘개인 차원 희망’과 ‘사회 차원 희망’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하고 이 둘을 동일 척도로 측정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적 희망 수준 뿐 아니라 희망과 관련된 인식과 행동 요소들을 함께 조사하여 관계를 분석하였음

## ■ 조사 결과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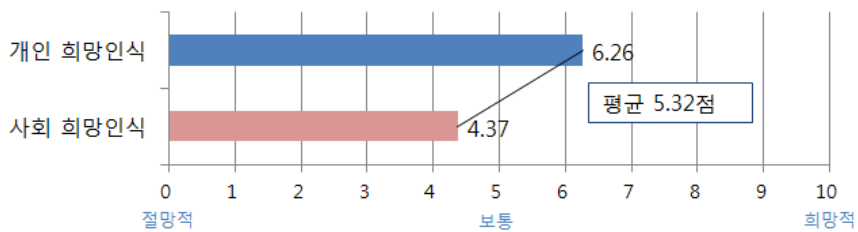
### ○ ‘개인 차원 희망’과 ‘사회 차원 희망’ 수준의 격차

- ‘개인 차원 희망’은 중간인 5점을 상회하는 6.26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는데 1회의 조사로 이에 대한 절대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향후 누적된 조사를 통해 추이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인 차원 희망’에 비해 ‘사회 차원 희망’이 상당히 낮아 우리 공동



체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 자녀세대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으로 만들며 이는 출산율과 같은 사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처럼 ‘사회 차원 희망’ 수준이 낮게 지속될 경우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인 차원 희망’ 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 현재 삶에 대한 인식과 ‘개인 차원 희망’ 수준

- ‘희망’에 대한 연상 단어를 조사한 결과 ‘꿈’(9.1%), ‘미래’(8.0%)와 같은 미래 요소도 있었지만, ‘행복’(10.5%), ‘건강(3.5%)’, ‘기쁨(3.5%)’, ‘돈(3.0%)’과 같은 현재 요소가 많이 응답됨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차원 희망’ 수준 간에도 정적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삶에 만족할수록 개인 차원의 희망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음
- 결국 ‘희망’이라는 것이 현재와 무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 ‘현재에 기초하여 전망되는 미래’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경제상태	사회적 지위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	가족/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
개인차원희망	Pearson 상관계수	.618	.563	.555	.541	.47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 ○ 희망과 관련된 인식·행동과 ‘개인 차원 희망’과의 관계

- 희망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록 개인 차원 희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희망에 대한 인식(‘희망을 갖고 있다’, ‘꿈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이 희망에 대한 행동(‘노력하고 있다’, ‘주위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

		나는 내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나는 희망하는 꿈 상당수를 실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희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 희망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개인차원희망	Pearson 상관계수	.527	.573	.439	.40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 ○ 소득 수준과 ‘개인 차원 희망’ 수준

- 소득이 낮을수록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미래 희망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앞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차원 희망’ 수준의 상관분석에서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큰 상관성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구 분		전반적 삶의 만족도 (5점 만점)	개인 차원 희망 수준 (10점 만점)
전 체		3.11	6.2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77	5.61
	201~400만원	3.03	5.98
	401~600만원	3.20	6.42
	601만원 이상	3.39	7.05

### ○ 연령에 따른 특징

- 주요 경제 활동 계층인 3040세대에서 ‘개인 차원 희망’ 수준이 가장 낮는데 이는 양극화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반적으로 희망 수준이 높아야 할 저연령층이 고령층보다 오히려 희망 수준이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

		삶의 만족도 (5점만점)	개인 희망인식 (10점만점)
전 체		3.11	6.26
연 령	만 15~19 세	3.03	6.19
	만 20~29 세	3.03	6.23
	만 30~39 세	3.01	5.98
	만 40~49 세	3.01	5.99
	만 50~59 세	3.21	6.65
	만 60 세 이상	3.26	6.41

## ○ ‘수저 결정 사회’와 희망

- 희망적인 삶을 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41.1%)을 가장 많이 꼽고 그 다음이 ‘개인의 노력’(37.7%)임
- 5060세대에 비해 젊은층에서 ‘부모’ 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직장인, 학생 계층에서도 ‘부모’ 요소를 가장 많이 꼽음
- ‘개인의 노력’보다 ‘집안 배경’이 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부의 세습’, ‘금수저 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이 확인됨

## ○ 희망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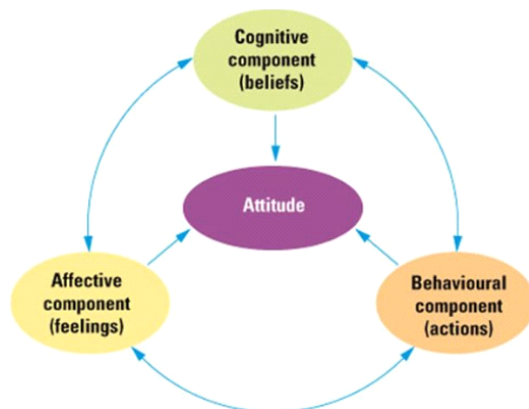
- ‘시민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희망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 차원 희망’ 수준은 시민참여 활동의 ‘적극적 참여층’에서 크게 높으나, ‘사회 차원 희망’ 수준은 ‘적극적 참여층’ 뿐 아니라 가끔 모금,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간헐적 참여층’에서도 높게 나타남. 사회활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희망’ 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과 아울러 이러한 기회를 확산시키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함

시민 참여 활동	개인 차원 희망 수준 (10점 만점)		사회 차원 희망 수준 (10점 만점)	
	무관심층	5.19	3.31	
관망층	6.15	4.36		
간헐적 참여층	6.50	4.65		
적극적 참여층	7.13	4.71		

## ■ 희망 관련 조사에 대한 제언

### ○ 희망지수에 대한 희망

-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의 탐색적 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음
- ‘지수(index)’란 일반적으로 일련의 규칙과 공식들을 통한 복합적 구성개념(construct)을 종합하여 산출한 점수를 말함. 본 조사에서의 ‘희망지수’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된 10점 만점 점수 측정의 결과이고 통합적 지수개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희망 측정뿐 아니라 희망을 하나의 태도(attitude)로 보아 희망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차원의 요인을 망라하여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Allport 태도이론 참고)
- 좀 더 중장기적 지수로 발굴·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조사 경험이 축적되면서 관련 개념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수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함



〈참고〉 Allport(1935)의 태도의 3가지 구성요소





발제 2.

# 희망이 우리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가지는 의미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희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들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에 대한 탐구를 개인과 사회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수행한 연구결과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한국사회가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통하는, 제 자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문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문제 공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인가’를 논하면서 각축하는 공통의 소통공간입니다. 소통의 핵심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통)가 있습니다.

희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미래라는 것의 의미가 묘연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명성과 확실성, 그리고 현재 존재가 미래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암묵적 믿음에 균열이 생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발산하는 묘한 힘과 슬픔, 그리고 용기 같은 것을 집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열망을 말하고, 또 욕망을 말해 왔다면, 것처럼 저돌적으로 목적과 대상을 향해 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좌절 속에서, 실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서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낙관에 가득 차 있던 확고한 미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두려워진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최 측에서 요청하신대로 미래나 희망 그리고 꿈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성찰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 명제로 제가 그간 탐구해 온 바를 정돈해보겠습니다.

니다).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현재 이후에 다가 오는 미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래는 공평하게,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전공하는 사회학자로서 제가 파악하는 ‘미래’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예정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구축, 구성, 정립합니다. 그것은 국가, 조직, 사회, 가족, 개인과 같은 모든 사회단위들의 매우 중요한 실천 내용을 이룹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미래는 형태를 갖추어 나타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꿈꾸면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디스토피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유토피아).

꿈꾸는 존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도, 상황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도 꿈에 몰두합니다. 때로 그것은 현실성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복권당첨이나 일확천금).

그러나 꿈의 환상적 성격은 언제나 그것의 비전(vision)적 성격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개인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조직들 그리고 국가도 꿈을 꾸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생산된 미래는 무형적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공공적 자원의 혜택과 사용은, 미래

---

1) 이론적인 탐구로는 다음을 볼 것(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사회』 108). 시쓰는 청년들에 대한 케이스 연구로는 다음을 볼 것(김홍중, 2016. “진정성의 수행과 창조적 자아에의 꿈”. 『한국사회학』 50(2).). 아래에 전개될 내용은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와의 의미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꿈의 능력)의 차등적 구성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들(계급, 젠더, 서울과 지역, 인종, 세대 등)의 맥락에서 미래에의 접근가능성과 활용성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달려 들어서 원하는 만큼 캐어갈 수 있는 무한한 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경제는 발전하고, 삶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대량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미래는 것처럼 풍요롭게 생산되지 못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두 가지의 대표적 광고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보험과 대출광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이제 광택이 아니라 ‘빛’ 아니면 ‘암’입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급적 차이, 젠더적 차이, 그리고 세대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갖습니다.

아무나 미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생산합니다. 누군가는 질적으로 고양된 미래를, 누군가는 질적으로 참담한 미래를 생산합니다. 미래라는 공통 자원의 생산, 분배, 관리, 이것이 정치의 차원 높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와 현재가 맺는 집단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을 교정해야 합니다. 희망의 쏠림과 박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資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 영역(문학, 예술, 웹툰, 방송, 인터넷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심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설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만으로 그것을 측정하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간직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꿈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즉, 꿈의 능력은 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렇게 꿈꾸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리고 꿈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총합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 비교연구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꿈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창의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사이에서, 서울과 지역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현대사회과학이 '자본'으로 유형화하는 무언가의 하나로 개념화합니다. 즉, 꿈의 능력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화폐(경제자본), 관계(사회자본), 교양(문화자본), 혹은 게리 베커(Gary Becker)가 말하는 인적 자본과 유사한 그런 의미의 자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꿈-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꿈-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역량을 증강시켜 나가고,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하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꿈-자본은 한 인간 존재가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품고 있는 미래상의 강도와 확신과 욕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매스미디어의 스타들로부터,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캠페인 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들의 축적을 위한 행위와 실천을 향해

가게 하는, 속담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말이 먹는 물이 아니라, 말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더 원형적입니다. 꿈꾸는 힘은 깊은 심적 작용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손쉽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꿈-자본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못지않은 꿈-자본의 평등도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 받는다면, 그 때 가장 중요하게 깊은 문제는 꿈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꿈-자본의 편중과 빈곤입니다.

셋째 명제는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는 것’, 희망은 오히려 비관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주의를 구분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래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실하고 유일한 천국(The True and Only Heaven)>에서 서구의 진보 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미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학적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낙관주의 없는 희망”입니다<sup>2)</sup>. 이것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에 자신을 던질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희망이며, 비관적 전망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벨 또한 희망과 낙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sup>3)</sup>.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인가? 하벨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의 일차적 기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

---

2) Christopher Lasch. 1991. *The True and Only Heaven*.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p. 392-3.

3) Havel, Vaclav. 1991. *Disturbing the Peace*. New York. Vintage. p. 181. 인용. Deneen, Patrick, J. 1999. "The Politics of Hope and Optimism. Rorty, Havel, and the Democratic Faith of John Dewey". *Social Research* 66(2). p. 581.

다 (...) 초월적인 것(transcendental)의 경험이 없이는 희망이나 인간적 책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sup>4)</sup>.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리하여 낙관주의보다는 오히려 비관주의와 더 깊은 연결을 갖습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곳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은 실망가능해야(disappointable)합니다<sup>5)</sup>.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용어로 돌려 말하자면, 희망은 비관주의를 전제로 하고, 비관주의를 뚫고, 그것을 솟구치고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이때의 비관은 인지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조나 세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지적 비관을 뚫고 나오는 감정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비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점에 저는 희망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가 미래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가 꿈꾼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가 희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됩니다. 희망의 에너지로 꿈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 행위자입니다.

---

4) Havel, Vaclav. 1997. *The Art of the Impossible*.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p. 238-9.

5) Ernst Bloch. 1998. *Literary Essays*. Werner Hamacher and David E. Wellbery. eds. Andrew Joron et al. tr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 341.



발제 3.

#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하승수 (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1.

희망제작소의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절망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각자생존'의 사회가 된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일자리,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거문제,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를 어떻게 개인이 혼자서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도피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은 모두 삶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풀어가는 곳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절망적 인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 어떻게 하면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표류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물론 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문제 많은 선거제도는 이번에도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47.5% 정도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00%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간접선거 방식의 선거제도가 낡은 결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은 '트럼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버니 샌더스 열풍도 새로운 출구를 찾고 싶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어떤 정치인이 영웅처럼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고 해도,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에 의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정치가 국가와 지역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다보니,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문제는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주체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은 17.9%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시민들이 3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인물을 통해 정치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주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정치변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도의 변화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면, 기존의 정치세력들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주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헌법개정 이전에 선행되어야(또는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미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배분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게 될 때에, 정치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는 것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세계적으로 행복순위가 가장 높은 6개 국가, 그리고 부패가 가장 없는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잘 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다당제의 정치구조에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언급된 국가들 중에 캐나다를 제외하면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순위	행복도 (UN세계행복 보고서,2016)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2015)	민주주의지수 (EIU,2015)	정치 구조	선거제도
1	덴마크	덴마크	노르웨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3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웨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4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질랜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5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공동5위)	덴마크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6	캐나다		스위스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변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발안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헌법개정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4.

제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참여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제작소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기존 시민운동의 유의미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시민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마당의 주인은 시민들이 될 수 있게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꼭 큰 조직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개인이 큰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 5.

한편 시민사회는 정치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대안적인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려는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의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국가단위의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시민들이 먼저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다른 말로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과거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위기 앞에 섰지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되살리는 정책들을 진전시킬 기회를 다시 맞고 있다.”





발제 4.

**시민들의 작고 소소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 시민들의 작고 소소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 그리다협동조합 운영사례와 시민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 1. 그리다협동조합 사례

- 1인가구와 함께하는 대안적인 복합커뮤니티 공간
- 여성(1인 여성가구를 포함한)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목표로 만든 협동조합이며 마을기업

### 1) 그리다협동조합: W-greeda 의 비전

-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인 삶을 **그리고**, 평등한 가치를 꿈꾸며, 지속 가능한 삶과 관계를 함께 **그리는** 곳
- 그리다의 이름은 ‘꿈을 그리다’의 의미도 있고 그림을 그리듯 함께 ‘여성들의 공동체를 그려나간다,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

### 2) 그리다협동조합의 공간

- ① 홍대부근 어슬렁정거장
  - 유기농커피(로스팅), 유기농 음료, 스튜 및 커리 등 일품요리

-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대관을 통한 네트워킹

◎ 생기랑마음달풀 연구소(자기성장상담연구소)

- 상담 : 개인 및 집단상담 , 성격유형진단검사 등
- 교육 : 자기성장,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 모아놀아 창작소(하나모여 무한대, 조합원활동)

- 마음열고 채우기 : 혼자서도 괜찮고 모이는 대로 재미솔솔 조합원 모임(1인 여성가구 셰어링, 글쓰기, 드로잉, 동행 모임, 별별강좌 등)

②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카페 (능동 어린이 대공원≪= 꿈마루)

- 유기농커피, 유기농 음료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 시민참여프로그램

### 3) 그리다협동조합의 활동

① 자기성장프로그램 : 비혼 1인가구 등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② 1인 여성가구 셰어링(어슬렁셰어링) : 동네친구 모임

- 1인 여성가구들이 물적 자원(떡거리 등),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
- 아플 때 병원 동행
- 텃밭 농사 작물 나눔
- 사진, 심리치유, 요리, 운동, 취미생활 등 자신의 다양한 잠재력 또는 전문성을 다른 여성들과 나눔으로 서로 성장

- ◎ 1인용행복 : 1인 여성가구들의 '건강권'을 주제로 구성한 잡지
- 실제 그리다협동조합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카페공간에서 활동
- 나아가 전문성을 가진 여성 개인이나 네트워킹을 통한 따로 또 같이 1인 여성 가구들의 경제공동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다양한 1인 여성가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획해가는 공간
- 어슬렁거리며 드나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다양한 먹거리로 건강을 돌보고 즐거울 수 있는 공간, 세대별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모임을 구성, 네트워킹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하는 공간

#### 4) 어려운 점

- 여성들이 함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임파워먼트를 위한 공간(공동체 활성화)이라는 공공적 가치창출 이외에 경제적으로 자립운명을 해야 하는 면
- 다른 협동조합, 마을기업(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이 쉽지 않음
  -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자리매김이 쉽지 않음

## 2.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동으로

사회 양극화,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갈등,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의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 - 불안한 삶,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삶

\* 시민희망지수 조사에서 ‘시민참여활동’에 참여적인 계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해 모두 희망적 인식을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더욱 목소리를 내고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는 것에 50%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에 긍정 의견이 더 높아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 정치, 경제, 사회, 여성, 환경, 평화, 문화예술, 교육, 복지, 장애, 성소수자 등 다영역에서 수많은 주제의 활동 전개
- 지금 시민사회 활동의 현장은?
  - 시민사회 활동 또한 가치와 생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활동 경쟁
  - 기존 조직의 관리와 유지에 급급
  - 활동가들의 소진
  - 새로운 활동가들의 유입이 쉽지 않음
  -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부담 증폭
  -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안 찾기의 희망이 절실하지 않음(운동

에 대한 피로감 누적)

## 2)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말해져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 일상의 변화가 체감되는 활동이 필요하다!

예) 기후변화의 심각성

지진, 핵발전소, 미세먼지, 유해화학 물질, GMO 식품 등 생명 안전에  
의 위협, 산과 강의 훼손, 환경파괴적인 개발론, 발전논리, 규제완화 →  
에너지절감운동(\*성북구 석관동 두산APT 사례 등), 고발 운동, 참여하기/  
알려내기/함께 대안 찾기(\*녹색시민으로 참여)

① 자기 주도적인 활동 :

- 자기정체성(인권/자아존중감) 찾기(조직구성원 이전에 '나' 자신)
- 노동권(인정 및 보장)의 중요성
  - 단순하게 살기(미니멀리즘) 등

② 조직문화의 혁신 :

-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성별 세대별 직급별/\*차별감수성, 젠더감수성)

③ 공유 활동 :

- 더불어 살기의 시도
- 도시텃밭, 협동주택, 공유경제 등

④ 연대활동 :

- 연대의 사회적 의미 찾기
- 다양한 다층적인 공동체적 삶의 모델 만들어내기
- 공동체적 연대 : 소그룹 동아리 활동의 확산
- 마을 공동체 : 마을 내 여러 단위들과의 만남, 공유, 연대
-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에필로그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10대~60대 이상 시민 서른 명의 ‘희망’

2015년 10월 31일 위촉

참 고맙습니다.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연령	자문위원	희망이런	희망지수 개발에 대한 기대 혹은 하고 싶은 말
10대	김나현(여) 김지민(여) 박관웅(남) 임채원(여) 황용하(남)	삶의 변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미래	저는 항상 희망제작소에서 만들고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시민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 희망을 주고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김토일(남) 노재환(남) 노혁수(남) 박성은(여) 이종은(여) 장석현(남) 정원희(여) 조형준(남)	간절함 실현하기 어려운 길 그림에도 해낼 수 있 으리라 믿어야 하는 것 상대적 박탈감이 적고 각자성향에 맞게 미래를 꾸며나갈 수 있는 환경 사랑 빛 어둠 밝음 눈부 심 고통 발견 눈물 고문 좌절 행복 내일 변화	힘들고 절망하는 이들을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희망을 함께 느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30대	공용재(남) 김미화(여) 민천홍(남) 박수진(여) 조준형(남) 황아미(여)	어린이들이 행복한 평화 화해 통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복지 안전망 자유 힘 미 래 행복 꿈 목표 사람 세상	거대담론이 아니라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선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
40대	김준영(남) 곽성진(남) 마 진(남) 이현정(여) 정미영(여) 한종성(남)	사람 봉사자 NGO 교육 기부 학생 일부연론 책 배움 등 보이지 않는다 없다 사 회보장 편안한 노후 생 활임금 정치 선거 노동	희망찾기 프로젝트 그 발상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본다.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야 한다. 희망적인 것들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널리 알려 아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그래서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하루하루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희망지수 개발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희망이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연령	자문위원	희망이란	희망지수 개발에 대한 기대 혹은 하고 싶은 말
50대	공 헌(남) 오정란(여) 이정규(남) 장한교(남)	함께 미래 계획 청소년 책임감 공동체성 배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60대 이상	박현숙(여) 이경숙(여) 장두현(남)	청소년 밝고 건강함 인 권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유산 사회적 책임 인성 보편적 가장 기본 적 가치 소망 밝음 인생 도전	인생에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 희망은 절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희망을 추구한 결과다

## 우리시대 희망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 선거일, 투표장, 시민.
  
- 첫째, 항상 우리주변에서 사람냄새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희망을 발견한다. 둘째, 봉사할 때 각종 봉사하는 곳에서 대가없이 헌신하며, 자기 시간 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 희망을 발견한다. 셋째, 어느 때나 항상 NGO에서 그 안에서 헌신하며 묵묵히 활동하시는 그분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넷째, 배울 때 그리고 가르칠 때 학교 및 각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볼 때 희망을 발견한다. 다섯째, 언론에서 또는 주변에서 소식을 접할 때, 기부하는 아름다운 그들을 볼 때 희망을 발견한다. 여섯째,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버스나 지하철 또는 학교 주변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일곱 번째, 신문과 뉴스를 볼 때마다, 객관적인 뉴스를 보고 있을 때, 팩트와 마음에 와 닿는 기사를 쓰고 내보내는 일부 언론과 기자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여덟 번째, 독서를 하고 배울 때,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등, 읽고 배우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 정답은 '지금, 여기, 우리'다. 하지만 발견하긴 쉽지 않은 일.
  
- 평범한 시민 누구에게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의지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 1)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부분을 용기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2)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경험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진, 3)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만한 정치인을 볼 때
  
-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발견했다.
  
- 언제: 의도하지 않은 때에,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누구에게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선행(유재석의 기부 행위)이나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내부고발자)을 통해서요.
  
- 현재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소수에게 전유된 것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헬조선에서 살 운명입니다.
  
-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정치활동을 작은 부족부터 현대의 국가와 국제사회까지 이르러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거창한 활동이 아닙니다. 주변의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모두가 함께하고 참여하는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희망은 우리 시민들에게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정치활동에 참여할 때,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의 이념을 추구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며 좋은 나라를 꿈꿔갈 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는 청소년, 대형마트에 맞서 시장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 아무도 관심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알리기 위해 길을 걷는 사람들 등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행동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지금, 여기서, 모든 세대에게서.
- 청년이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
- 개인적으로, 개개인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희망이 숨 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일 테지요. 그러나 그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어른들의 마음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와 비슷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요.
- 절망의 시대, 포기의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요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순간순간을 봤을 때(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 교수들의 이슈 파이팅)
- 희망은 거대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주변을 가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꺼내 놓으며 삶을 살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답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사업성과를 기여한 만큼 나누는 사장님, 자신의 일에 윤리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직장인,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학생, 종교의 본질을 살려 사회와 복지를 위해 힘쓰는 종교인, 정치와 사회 진실을 찾아가 알리는 진실한 언론인, 스스로도 꿈이 있고 학생을 존중하는 선생님, 정직하게 장사하는 소상공인, 텃밭을 일구며 사회에 봉사하며 노년을 살아가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주변 사람에게 한 번 더 미소지어줄 수 아는 생활인. 우리사회 희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임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희망기획팀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6년 11월 21일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1026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자료집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